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21세기 경쟁력은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의 힘 그 힘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

머릿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경우
5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준

커버스토리 (주)대교 회장 송자

리더살이야기

지자체특강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신달자

발행인편지

CEO 건강이야기 정경연한의원 원장 정경연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세상을 보는 눈 성공이미지연구원 원장 윤금순

회원광장 I 베로니카 카스 코리아아카데미 원장 오경근

회원광장 II 고지석세무회계사무소 회장 고지석

조순칼럼

표지인물 송자 (주)대교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5

2006 May

동권 제83호 [매주]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6년 5월 1일 발행인: 정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IHDI) 주소: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F) F. 2203 1974 www.khihdi.or.kr 디자인: 디지털코드 www.cod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92 5323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광화문점: 1544-1900	강남점: 1544-1900	잠실점: 1544-1900	부산점: (051)806-3501	대표전화: 1544-1900
대전점: (042)222-7891		인천점: (032)455-1004	성남점: (031)752-1323	대구점: (053)425-3501
부천점: (032)663-3501		창원점: (055)284-3501	영남대점: 053-811-3501	안양점: (031)466-3501

국제매너와 프로토콜

이경우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요즘같이 정신없이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알아두면 편안하고 든든한 국제매너와 프로토콜의 기본에 대해 몇 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다.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잘못되면 가끔 엄청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도 중요하지만 주로 국가행사나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의전상의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수 없이 심각한 외교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간의 의전은 사전에 서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지게 되지만 막상 행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현상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하면 꽤나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토콜은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개인은 이런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80년대 중반부터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고 세상 어디를 가도 한국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심코 행하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과 처신이 바로 한 국민에 대한 이미지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국제간 교류를 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토리노동계올림픽의 영웅이 비록 내무사정이 있긴 하지만 한 가족의 실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감정을 앞세운 매너의 부재로 나타난 실례이다. 자기 돈 내고 즐긴다고 하지만 무더기로 해외 골프관광을 다니는 경우에도 항상 기본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 가난하고 순박한 현지사람들도 그들이 만나는 한국사람들을 통해 한국을 평가하고 한국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매너도 때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항상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순리를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슨 핑계로든 다른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최악이다. 그러나 국제간에는 서로 다른 문화나 언어의 차이로 생기는 오해나 갈등은 어쩔 수 없다. 마음을 열고 진실 되고 솔직한 자세로 대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극복된다.

요즘은 국가의전이나 개인적인 매너도 매우 간단해지고 가능한 요란한 격식을 피하는 경향이 많다. 세상이 그만큼 바빠지고 복잡해지니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국가정상들간의 모임도 가끔 전화로 쉽게 정해버린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복장도 캐주얼이 정장보다 더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면 어떤 기존 의전절차나 제약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오늘날 진정한 국제매너나 프로토콜의 기본은 오히려 항상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허한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人間**



이경우 사무총장

1945년 생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프랑스 파리 국제행정대학원(IAP) 졸업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연수 /駐시카고총영사관 영사 / 외무부 의전실 특전담당관, 구주국 서구2과장 / 駐영국대사관 참사관 /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 외무부 아중동국 국장 / 駐요르단 대사 / 2010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 경희대 관광대학원 초빙교수 / 駐미안마 대사

5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 美 시라큐스대 맥스웰 대학원 행정학 석사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 제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 환경처 차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 철도청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사)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주)와이즈 인포넷 회장 /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상훈>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경쟁이 꽃피는 경제, 시장으로의 귀환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451회 5월 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이 발표한 금년도 경제전망치를 보면 5%대의 경제성장률과 4%대의 실업률, 3%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나타났으며, 50여명의 경제전문가가 내다본 전망치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치경제와 비교하면 확실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는 미국의 수치경제보다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치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나 실물경제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30~40년 전에는 실물경제와 수치경제가 따로 놀 수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나 구조가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과 무역대국을 자랑할 정도로 경제규모와 조직이 복잡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 김인호 원장은 경제전망의 수치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틀과 시스템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현재의 경기 확장국면이 올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인호 원장을 초빙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그리고 이에 뒷받침된 경제의 전반적 모습이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을 좌우할 조건에 대해 적절한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다.



강철환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

1968년 평양출생(복숭 재일교포 3세) / 1977년부터 10년간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 수감 / 1992년 탈북 / 한양대 무역학과 졸업 / 한국전력공사 근무 /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저서> 대왕의 제전, 수용소의 노래

강철환 기자의 북한이야기

1452회 5월 1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서방의 한 회사에 의해 인공위성 사진이 촬영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곳에 관한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의 취약함과 충격적인 사실 등의 이유로 인해 그 실태가 일반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한 <평양의 어항(The Aquariums of Pyongyang)>이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가 10년간 북한의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겪었던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담은 이 책은 이미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출판되었으며, 국내에는 2003년 <수용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이 책은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책 베스트 100'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저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측근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992년 탈북해 현재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로 활동 중인 강철환 기자를 초빙하여 북한 내 인권의 사각지대인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알아보고 북한 주민의 불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고려대 법학과 졸업 / 美 페퍼디인대 경영학 석사 / 경희대 경영학 박사 / 쌍용그룹 상무 이사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 대양장학회 이사장 / 새정치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기초위원장 /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전 21위원회 본부장 / 국회공적자금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 당의장
 <저서> 21세기 도약을 위한 80대 국정과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한국의 리더십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력 양성방안

1453회 5월 1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창조, 공유, 활용이 일반화 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정보화사회로 진행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핵심인력은 그 기업의 핵심역량 유지, 강화에 꼭 필요하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에 맞는 핵심인력을 적극 양성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이 원하는 핵심인력은 기존의 업무노하우나 지식뿐만 아니라 신사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제는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천명, 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해 핵심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8년간 쌍용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산자부 장관에 취임한 정세균 장관을 초빙하여 기업의 인재개발과 핵심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종구 이종구심장클리닉센터 원장

서울대 의과대 졸업 / 캐나다 온타리오대 및 맥길대 심장내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취득 / 日 후쿠오카대 의학박사 / 스웨덴 카로린스카대 연구원 / 캐나다 에드먼턴 앨버타대 교수 / 캐나다 로열 알렉산드리아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북앨버타주 심장재활원 원장 / 美 인디애나대 교환교수 / 서울중앙병원 심장센터 소장 및 울산의과대 교수 / 대한순환기학회 회장 / 캐나다 앨버타대 명예교수 / 서울삼성의료원 심장센터 외래교수 / CyberMedK 대표
 <저서> 심장병 알면 이길 수 있다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1454회 5월 2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산업화와 도시화,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질병구조도 과거의 전염성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인의 질병부담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질병은 암과 심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암과 사고 등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뇌손상의 경우 그 장애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한창 일할 나이에 멀쩡하던 사람이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장병 등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심혈관질환은 어느 질병보다 예방이 가능하기에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심장병 권위자인 이종구 박사를 초빙하여 심장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과 조기발견, 효과적인 치료와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송병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은 산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년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1년간의 연구를 정리한 보고서가 8권의 책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작업은 2020년대 효자산업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차 년도는 2020년대 우리 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분야가 유망할 것인가를 작업한다. 2차 년도는 그것을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작업이 진행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오죽하면 틀리기 위해 전망을 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 2020년까지면 상당한 장기전망인데 이것은 과거 추세만으로는 예측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메가트렌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2020년대의 세계 산업경제에 영향을

미칠 15개의 메가트렌드를 선정했다. 그리고 선진국을 포함한 '친디아 (Chindia)'의 산업 발전비전 2020 버전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전체를 보는 것은 우리 연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미국의 Global Insight社라는 전망기관에 의뢰해서 공동연구를 했다.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산업의 밑그림을 토대로 어떤 분야가 유망할 것인가를 선정해 보았다. 그리고 15대 메가트렌드가 미래 유망분야 선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뒤 2020년 모습을 그려보았다.

15대 메가트렌드 선정

디지털 기술, 기술융합,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은 한국산업 성장잠재력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2020년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미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발전 여건을 형성하는 근본 조류이다. 그래서 조금 많긴 하지만 15대 메가트렌드를 선정했다.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림1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5대 메가트렌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인구부족,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문화조류 형성까지 15개가 있고, 자료 오른쪽에 있는 주요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와 같은 트렌드들이 미래 전망 모형 내에서 어떤 요인들과 어떤 채널들을 통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2에서는 이 15대 메가트렌드의 핵심을 정리해보았다. 세계경제의 통합,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우리는 트렌드 분석이나 유망산업 분석에 있어서 델파이조사를 많이 활용

■ 그림1_ 5대 메가트렌드의 파급 영향



■ 그림2_ 15대 메가트렌드의 핵심요소

메가트렌드	핵심 요소 및 방향
1) 세계경제의 통합	- 무역: 다자주의의 상대적 후퇴와 지역주의 고조 - 금융: 금융의 글로벌화와 경제양극화 및 지역 격차 - 다국적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2) 세계경제의 역학 구조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 미국 및 아시아경제의 성장동력 역할과 일본, EU의 상대적 정체 - 중국: 인도의 부상과 선진국의 산업 강국 지속
3) 인구구조의 고령화	- 급격한 고령화로 성장 위축 우려 - 고령과 소비트렌드 및 고령친화산업 부상 - 적극적 노령시장정책을 통한 '인생 2모험' 유도
4)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 지구온난화와 국제환경규제의 무역장벽 대두 - 국제원유가 장기적으로 일변한 상승 전망 - 주요국간 수소경제 진입 경쟁 가속화
5)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금융업의 기능적 수렴화와 금융·산업의 융합 - 투자서비스와 장기금융서비스의 확대 - 국내외 금융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규제체제
6) 경영의 신조류: 지식경영 및 윤리경영	- 지속적인 신 지식경영전략에 개발 및 적용 확대 - 윤리경영의 확산
7) 디지털·비트워크 기술의 성숙	- 기술의 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 발전 - 소비자 요구의 멀티미디어, 개인화, 이동화, 보안화 - 유틸리티화 사회의 도래
8) 바이오 경제의 도래	- 주요국간 바이오기술 선두 경쟁 치열 - 바이오 의학, 신소재 분야가 주도 - 바이오윤리 국제적 규범과 결합
9) 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 IT, BT, NT 분야의 상승적 결합 가속화 - 기술융합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초래
10) 새로운 도전: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 핵심 기술개발 전략으로서 민간금융의 부상 - 항공우주·위성과학기술의 발전 가속
11) 기술패권주의: 표준과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강화 -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화 관련
12) 소비패턴의 변화	- 고령화와 성공기층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다변화 - 인연, 건강, 정신 중심의 소비 확산
13) 새로운 문화조류의 형성	- 세계문화의 동조화와 다양화 공존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증가: 건강, 세제, 웰빙 - 역사의 역할 강화 및 NGO 활동의 확대
14)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 전망	-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추진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민간화 촉진
15)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 조정에 노력 지속 - 경제지역별 혁신역동성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했다. 델파이조사 시 전문가 438명이 응답을 해줬는데, 응답자의 40%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이고, 43%는 경제경영관련, 17%는 인문사회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3개를 골랐는데 디지털기술, 기술융합,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이 그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트렌드는 역시 고령화문제이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나 천연자원의 고갈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패권주의, 표준화의 강화나 지적재산권 강화 등도 우리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메가트렌드들이 각 산업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세계경제의 통합과 비교우위구조의 변동,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화의 진전이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예상했듯이 경쟁력이 있는 주력기간산업에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 결과가 나왔다. 2020년에도 현재의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주력산업들은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급능력이 줄고 수요도 감소해서 더 부정적이다. 그렇기

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 관련 서비스나 식음료, 주택,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에도 순기능을 가진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섬유, 가전, 전자제품 등은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20년대에도 세계 초강국 위치 유지
중국과 인도는 유럽과 일본을 앞서 나갈 것**

주요 선진국과 '친디아(Chindia)'의 산업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가 집중적으로 본 국가는 미국, 일본, EU, 중국, 인도 등이다.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미국 3.1%, EU 2.1%, 일본 1.1%로 전망된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성장률이 높다. 그 이유에 '젊은 미국'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이렇게 '젊은 미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아시아와 히스패닉계의 높은 출산률에서 기인된다. 결국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미국이 2020~25년에도 세계 초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반해 유럽은 뒷걸음질 치고 일본은 그보다도 좀 더 뒷걸음질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경제권이 뒤쳐지는 만큼 중국과 인도가 앞설 것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은 2020년대에도 상당기간 불모지일 것이다. 중남미지역은 이기영합주의자들에 의해서 2020년까지 상당부분 휘둘릴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대부분의 미래보고서가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과 인

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서들이 있다. 인도의 미래를 중국 못지 않게 낙관적으로 보는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인도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보고서도 있다.

미래보고서들을 보면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가의 리더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적어도 2020년대 초반까지는 지금의 공산체제 중앙정부가 존재할 것이고 이 체제가 갈등구조를 잘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도는 사회적으로 오랜 카스트제도와 종교, 민족,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팽창해 개인주의적이고 민주화되어 있어서 갈등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은 정치적인 불안정 즉,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선진자본이 들어갈 수 없다.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갈등구조를 인기영합주의의 문제로 유도하는 과거 역사와 함께 현재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들은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 부문이 특히 발전해 왔다.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 비중이 84%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은 당분간 횡보할 것이고 서비스부문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미국 Global Insight社에서도 우리의 제조업 비중이 수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산업전망뿐만 아니라 1인당 GDP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것보다 더 낙관적으로 봤다. 최근 10~20년 사이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은 일본의 17% 보다 훨씬 높은 73.5%이다. 이는 곧 우리가 세계경제의 쇼크로부터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장점은 한정된 내수시장을 꾸준히 해외시장을 통해서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 길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성장주도업종은 섬유 → 자동차 → 반도체 → 정보통신 순으로 변해왔다. 특히 최근 반도체의 경우, 9년 가까이 국가경제의 전체 성장기여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 그 중에서도 주력기간산업부문이 노동생산성향상을 주도해 왔다. 이와 같은 생산성부문에 있어서의 변화추이는 앞으로도 조금씩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연장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력기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기계 등이다.

최근 한국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겠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굉장히 덕을 보고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경공업이나 농업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산업구조간 양극화 추세는 상당기간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 제조업 공동화는 이미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조짐이 있지만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추세와 비교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특정 부문별로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별적인 정책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산업부문간 양극화 부문에 있어서 2020년쯤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양극화라는 얘기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수출증가율도 과거 몇 년과 같은 높은 증가율은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내수가 늘어날 것이고, 내수가 늘면 서비스 산업의 회복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두 간극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양극화는 앞서 말한 중국요인을 포함해서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회수는 어려울 듯 하다.

한국경제 2020년까지 연평균 4.3% 성장 1인당 GDP 45,000달러 전망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20년까지 연평균 4.3% 성장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 투입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앞으로도 투자가 과거처럼 두 자리 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0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 중의 하나는 머지않아 정년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중고령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조만간 가시화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결국 중장년들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산업부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약조건 중의 하나가 노동·노사문제이다. 특히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노사문제이다. 다른 부문은 돈이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전히 제조업을 중시하고 있다. 사실 고임금 직종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제조업에 버금가는 분야가 없다. 선진국들이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조업은 R&D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유로운 시장 환경 조성, 산업여건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써 2020년까지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 것으로 본다. 인도의 산업비전 2020을 보면 전력, 수송,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와 통신, IT 등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재, 전자, 정보기술 등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들이 많다. 특히 인도의 경우 특이한 것은 민간검용기술로 군수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수용으로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횡보, 서비스업 비중은 상승세 지속할 것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술경쟁력은 2003년 특허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5위이다. 익히 잘 알겠지만 제조업 부문이 지난 30~40년 동안 급격히 늘어왔고 그 중에서도 중화

되는 분야라는 확신만 가면 얼마든지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에 비해 노사문제는 경제주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을 시도했는데, 기준성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 분석이나 앞으로의 환경분석 등을 고려해서 낙관론으로 본 것이 고성장시나리오이다. 그래서 기준성장 시에는 연평균 4.6% 성장이고, 고성장 시에는 5.1% 성장을 전망한다. 기준성장으로 가면 2020년에 1인당 GDP 45,000달러, 고성장으로 가면 49,000달러로 보고 있다. GDP 순위로는 세계 8위까지 가지 않을까 본다. 그런데 이 전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율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Global Insight社도 전망치 자체를 우리 쪽에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총 교역규모는 2020년에 약 1조 7,000억 달러로 세계 7위가 될 것이다. 작년엔 총 교역 규모가 5,000억 달러를 넘었다. 내수와 수출간의 간극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일자리 360~380만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차세대 반도체 및 이동전화, 친환경·연료전지자동차, 바이오 신약, 문화콘텐츠산업 등 성장성, 경제성, 공공성을 갖춘 유망산업 선정

2020년대 유망산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유망산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특정 산업 내에서도 새로운 신제품 또는 고부가가치제품으로 계속해서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간에도 그렇고 산업 내에도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제품이나 유망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망산업의 선정기준은 성장성, 경제성, 공공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놓고 첫째는 성장성을 봤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증가율이 2020년 전후로 얼마만큼 높을 것인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성장성만으로 유망산업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성숙기에 달한 산업이 급성장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시장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또 한국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공공성은 기술파급효과 등 국가전략상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했다.

우리가 한 작업은 국가의 유망산업 및 분야의 선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큰 지표로 고려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외의 유망분야를 총 망라하고 거기서 900여개의 유망품목 또는 기술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2020년대 산업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1차선별을 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선정해놓은 유망분야를 추려나가는 방식으로 85개 유망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다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41개 유망

산업을 선정했다. 그렇게 선정된 것들이 그림3과 같은 41개 유망품목 또는 기술들이고 그것을 다시 재그룹핑해 놓은 것이 중분류 14개 분야이다.

41대 유망사업에서 성장성, 경제성, 공공성을 모두 갖춘 산업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및 이동전화, 친환경·연료전지자동차, 바이오 신약,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다. 이와 같은 부문은 성장률 자체는 2020년 전후쯤에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산업발전 단계로 봤을 때 전 세계시장이 성장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다.

2020년 제조업 규모는 세계 5위 진입 가능 주력기간제조업, 지식서비스, 유망신산업이 3대 성장 축 형성할 것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면 제조업 규모는 2020년 세계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기간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주력기간산업은 2020년에도 수출과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식서비스산업 내에서도 금융보험 서비스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보험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고 재테크의 기능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사업관련 서비스의 비중도 많이 커질 것이다. 사업관련 서비스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컨설팅 쪽을 말한다.

대외부문의 2020년 비전에 있어서는 Global Insight社가 세계경제 또는 경제권역별로 약 70개국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의 전망을 의뢰했다. 그리고 71개 산업별 통계를 분석해서 받았다. 이 전망에 의하면 무역의존도는 현재 78.8%에서 2020년도에는 68%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력산업부문의 수출 비중이 현재 70%에서 7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산업별 수출구성비를 보면 자동차, 일반기계, 통신기기 등은 2020년까지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조선, 섬유, 철강, 석유화학은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3.5%에서 2020년 4%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0.5%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고 어렵다는 것을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이다.

산업별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전망치를 보면 자동차는 2004년 기준 2.8%에서 기준성장 시 3.5%로 점유율이 늘어나고, 조선부문의 점유율이 좀 줄긴 하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할 것이다. 조선의 경우 점유율 자체를 크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전자반도체의 점유율도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본다.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대부분의 통계는 전세기시장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통계를 낸 것이다. 그렇기에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수출대수기준으로 따지면 2004년에는 6위, 작년에는 5위였다. 그러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점유율이나 순위가 약간 틀려진다. 향후 2020년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은 크게 주력기간제조업, 지식서비스, 유망신산업 등 3대 성장동력이 그 축을 형성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환율이라는 큰 요인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과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축약했다. 바로 '액티브 코리아'이다.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호를 만들어 봤다. (人間

■그림3_2020 유망산업(14개 중분류 총41개)

중분류	유망산업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바이오 신약, 바이오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DMB, 텔레메딕스, 차세대 이동전화,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홀로그래프 디스플레이, LCD, OLED
신개념 컴퓨터	착용식 컴퓨터,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원료전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컨텐츠산업	문화컨텐츠, 게임
의료서비스	난치병 예방 치료 서비스, 노인성 질환 치료 서비스
차세대 에너지	2차 전지, 태양전지, 수소에너지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첨단항공소재	인공 지능 폴리머, 전자정보용 절연체 소재, 친환경 화학소재, 나노접합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고부가가치선박, 차세대 우주항공
초경량기부품	초미세공정기기, MEMS, 절단센터, 실버의료기기, 바이오칩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지능형 유연생산시스템, 고기능 환경설비, 고효율 발전설비

21세기 경쟁력은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의 힘 그 힘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

송자 (주)대교 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송자 회장

1936년 생 / 연세대 상학과 졸업 / 美 워싱턴대 경영학 석·박사 / 美 코네티컷대 경영대학원 교수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한국경영학회 회장 / 한국회계학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장 / 명지대학교 총장 / 교육부 장관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Safe Kids Korea 공동대표 / 한국사이버대학교(KCU) 총장

"교육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릴 때부터 지식교육만을 강조해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을 시기에는 지식을 창조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다른 일등들을 만들어 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경영자로서보다는 대학총장으로 불릴 때가 더 많은 송자 회장은 변화하지 않는 조직으로 유명한 대학사회에 최초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인물이다. 그래서 사실 송 회장에게 총장과 경영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습지 브랜드인 '눈높이'로 잘 알려진 교육서비스기업 대교를 6년째 이끌고 있는 지금도 그의 목표는 확실하다. 세계시장의 선두인 일본의 구몬을 제치고 글로벌 교육서비스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비전은 교수시절부터 철저히 몸에 밴 경영마인드가 총장을 거쳐 경영자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송 회장은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에 열정적이며, 똑부러지는 말투와 언변으로 언제나 활기찬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평소 성서와 논어를 삶의 지혜로 여기는 그의 생활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30년간 이어온 교육서비스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송자 회장을 만나 글로벌 교육서비스기업으로의 비전과 함께 21세기 경쟁력의 원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믿는 교육에 대한 그만의 소신을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회장님께서 대학총장, 교육부 장관을 거쳐 기업 CEO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요. 기업 CEO로서 지난 5년간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또 교육자와 경영자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교육부를 나와서 대교로 오게 된 것은 대교가 외형적으로는 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교육기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학교와 같은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교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15,000여명의 '눈높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들 모두는 주업무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하는 거죠. 일반 기업체의 업무와는 달라요.

예전에는 교육을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도 기업형 교육, 학교도 기업형 학교가 등장하면서 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어요. 그런 점에서 대학이나 기업은 경영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은 경영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학생, 교수, 학부모, 동문 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항상 공공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기업은 경영하기에는 훨씬 수월한 곳입니다. 전체 조직이 정해진 목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수지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등 리스크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올바른 교육만이 해법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대교의 미래준비, 비전은 무엇입니까.

선진국들의 발전 배경에는 항상 교육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컸어요. 한국이 세계인의 구호 손길을 기다리던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세계의 오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모두 교육의 결과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육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릴 때 인성교육을 더 많이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교육의 양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지식교육을 강조해 모든 사람을 학벌위주의 '똑똑이'로만 만들려는 교육을 해왔죠. 인성교육을 해나가면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읽기(Read), 쓰기(wRite), 계산하기(aRithmetic)의 '3R'이라는 것입니다.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런데 3R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문맹률이 높아요. 한국의 초등·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교는 이러한 3R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교는 3R, 특히 수학 분야를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해외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교는 인재양성의 질적·양적 토대를 마련하고 '눈높이 학습' 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시장의 선두인 일본의 구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교육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대교는 이미 거대시장 미국과 중국에도 진출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1976년 창립된 대교는 지난 30년간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부하는 처음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한 국내선두 교육서비스기업의 노하우를 세계 곳곳의 한국인과 현지 외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2002년 해외시장 통합브랜드 'E.nopi'를 개발하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직접진출과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및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시장은 1991년 LA에 '대교아메리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시장확대를 위해 '대교 USA'를 설립하였습니다. 중국시장은 2002년에 연길과 북경, 2003년에는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교육시스템에 부합하는 중국어판 교재개발과 현지 우수 인력 확보,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더불어 2002년에는 교육업계 최초로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눈높이 교육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산하의 싱가포르 프랜차이즈와 뉴질랜드, 영국, 호주, 필리핀 등에 프랜차이즈가 설립되어 눈높이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현재 시장테스트를 하는 등 해외시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바람직한 관계 등 우리 교육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50~60년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 혹은 10대 기업이었던 곳 중에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소비자들은 끝없이 변하는데 기업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단순히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만 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교육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다양성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균점수를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다양성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리는 날고, 뛰고, 헤엄치는 육해공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사회는 많은 '오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날고자 한다면 독수리와 같아야 하고, 뛰고자 한다면 치타와 같아야 하고, 헤엄치고자 하면 물개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평균치가 아닌 전문화된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른 일등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일반화교육이며 집단교육의 성격을 띠니다. 그리고 평등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변화의 수용이 느린 편이죠. 반면 사교육은

특성화교육으로 소규모 교육을 말합니다. 개인별, 능력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공교육처럼 진행되거나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보완관계를 중시할 때 우리나라 교육에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21세기 경쟁력은 바로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의 힘이며, 그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연구원에서 얼마 전부터 군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말 우리사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거 군 인력이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군이 사회로부터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시대의 경영자는 "종업원의,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자가 물적자원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과 영속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경쟁력은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GE나 도요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육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이며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대학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최초의 총장으로서 지금도 대학총장으로 불릴 때가 많을 만큼 교육계에 공헌하신 바가 크십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경영자로서 지론이나 교육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읽고, 쓰고, 계산하는 초등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등교육이예요. 고등교육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남이 가진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이미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어요. 올림픽도 개최했고, 월드컵도 개최했던 나라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에 소홀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서울대를 없애라, 평준화해라 하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아요. 대학은 저마다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법대나 의대에만 진학하려는 분위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 활동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모두 다른 그 직업의 일등들이 세계로 진출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일등을 육성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대학들이 필요해요.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지향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일등을 못하는 대학은 결국 도태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패는 대학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방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회장님께서서는 '인류사의 모든 지혜는 성서와 논어에 있다'고 하실 만큼 이 책들이 인생의 지침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를 책임져갈 젊은 세대들에게 책을 통한 가르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종교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섬기러 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고객만족과 기업혁신입니다. 이는 성경의 '섬김', '변화'사상을 현실의 경영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큰 틀에서 좌표라면 논어는 일하는 윤리를 설명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등은 상당히 현실적인 개념이죠.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성경과 논어를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컴퓨터나 인터넷과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서 얻는 지식의 양도 방대하겠지만 젊은 시절 읽었던 책은 살아가면서 삶의 자극제가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희생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경영학도로서 회장님께서서는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선진국들을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장도 하고 이로 인한 분배도 가능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혼돈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경쟁을 즐기고 개방적이었던 민족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능력 안에서 개방하고 외부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해요. 지금의 성장에 만족하고 주춤거리다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경우 제일 중요한 키는 역시 노사문제입니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50년 동안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없다면 현재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속도로 변화에 맞춰가는가 하는 것인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인가요. 일흔의 연세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정해 보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술, 담배 등 '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건강을 관리했어요. 정말 일에 몰두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해서 헬스도 하고 골프모임에도 가끔씩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나쁜 것을 멀리하는 생활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임이나 의무는 가정에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서 준 첫 번째 의무가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죠. 하나되는 가정을 만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가정이 편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 좋았던 날보다 어려웠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날을 극복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연구원의 법인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분야에서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은 인간개발 연구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처음 시작하셨던 것처럼 조찬모임에 충실하시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또 다른 능력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을 바탕으로 한 역량으로 앞으로는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우리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전달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불어오는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열풍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지만 무척 행복합니다."

요즘을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나누는 인사말이다. 바쁘고 행복하다는 말이 부러울 뿐만 아니라 보기에 좋다고 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및 기업을 다니면서 장성군 책 내용을 가지고 '리더십과 혁신성공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씩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강행군을 했다.

청와대,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정원, 식약청, 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를 다녀왔다. 경기도교육청, 대전교육청, 광주교육청, 숙명여대 등 교육계에서도 장성군 사례에 관심이 많다. 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CJ그룹, 동원그룹 등 기업체 역시 장성군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강의를 요청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강의와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에 교육계약과 컨설팅을 요망하는 곳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혁신은 누구나 실천하고 있었지만 구슬 꿰는 방법을 몰랐을 뿐
(주식회사 장성군)은 혁신에 자신감을 주는 리더십과 혁신 사례연구서

책을 쓰고 그 책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강의장에 가면 이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어서 수강태도부터가 남다르다. 강의를 시작할 때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주식회사 장성군은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리더십과 혁신 사례연구이다. 공직사회의 혁신성공전략을 다루고 있다. 혁신에는 비판하고 지적하는 '바람정책'이 있고, 잘 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햇볕정책'이 있는데 장성군 책은 바로 칭찬과 함께 하는 혁신차원에서 집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시골에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기업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 49개가 몰려와 중소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처음에는 시골 농촌이야기가 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책을 보면서 혁신의 방향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한다. 어떤 공무원은 "혁신이 참 추상적이고 피곤한 개념인데 책을 통해 혁신이 바로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혁신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인다. 또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장성군 이야기의 70~80%는 자신들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구슬을 꿰는 방법을 몰랐다"면서 "좋은 사례들이 많아 벤치마킹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공무원들이 그 동안 동네북처럼 평가절하 되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책은 공무원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는 공무원도 있다.

꿈과 비전을 가진 리더의 역할

고향에 대한 꿈을 잃지 않은 고향사랑의 결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장성군이 저자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고향에 대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향 사랑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 바쁘지만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꿈꿈이 생각해 보니 강의 시간 내내 고향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책을 쓰지 않았다면 고향사랑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강의가 끝난 후 혁신 담당국장이 "우리 시청도 장성군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장성에 관한 책이 나오니까 장성과 많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장성군은 고향출신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우리도 앞으로 고향출신들이 애乡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성아카데미를 참조하여 학습조직을 만들 계획이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피력해 주었다.

사실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기대와 설렘이 찾아오는 곳이다. 부모나 친척이 고향에 살고 있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추석이나 설 연휴 때 교통체증으로 고향길이 고행길이 되어도 피곤함을 모른 채 찾아가는 곳이 고향 아닌가. 강의 중에 고향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장성군에는 변화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군수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것뿐이다. 공무원도 주민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직 리더가 바뀌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김홍식 장성군수가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서울에서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지내고 중소기업을 경영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59세 때 고향을 위해서 사심 없이 봉사하여 고향을 일등군으로 만들겠다는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도 경륜을 쌓은 후에 말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봉사하겠다는 꿈을 갖기를 바란다."

장성군 열풍은 군대와 기업을 넘어 수많은

견학인파로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 열풍은 군대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육군본부와 5군단에 병영아카데미를 시작했다. 군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다. "사병들은 2년 동안의 군복무기간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봉사하지만 아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직업군인들은 과거에는 전역후의 직장이 상당 부분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기대할 수 없어서 퇴직 후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하다. 이런 불안요인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비결은 교육 밖에 없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와 기업에서 군의 교육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장성군의 열풍은 기업으로 그 바람이 넘어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류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고 말한다. 혁신경영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주산업의 김제우 부회장은 "시골 공무원들도 이렇게 변하는데 기업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주식회사 장성군 책을 읽고 본받을 점을 찾아 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기까지 했다.

장성군 열풍은 장성군을 찾는 견학인파가 줄을 잇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특히 장성아카데미가 있는 금요일에는 몇 팀씩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돌아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장성아카데미를 찾은 기관이 60여 팀에 달해 매주 평균 4개 팀이 방문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22개 지자체가 방문하였고, 지자체 이외 주요 기관의 방문도 이어졌다. 중앙인사위원회, 과학기술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조달청, 관세청,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강남초등학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육군본부, 공군본부, 부산지방방무청,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의회, 현대미포조선, 금호아시아나 등이 장성을 찾았다. 장성군의 김형수 교육계장은 "견학인파가 매일 몰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쁘지만 보람을 느낀다"며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견학인파에 힘입어 장성군청 앞 식당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찾아 강의하면서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변화의 속도가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變則生 不變則死(변즉생 불변즉생) 즉,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런 자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 않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人間**

變則生 不變則死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가정

신달자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고창 미래포럼'은 본원과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고창 미래포럼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혁신 및 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혁신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창 미래포럼은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3월 28일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제22회 강연을 해주신 신달자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신달자 교수

1943년 생 / 숙명여대 국문학과 졸업 / 숙명여대 국문학 박사 / 월간 <여성> 신인여류문학상 당선 / 현대문학에 '발', '처음목소리'로 문단데뷔 / 문채 동인 / 녹색문화재단 이사 / 진흥원 문학나눔 추진위원 / 교보 신용호 기념사협회 이사 /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 /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 외 다수, 산문집 <백치애인> 외 다수, 소설 <물위를 걷는 여자> 외 다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를테면 행복해지길 원하지 불행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행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에 대해 미온적입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이 찾아와도 가능한 행복하다는 말을 아끼고 인색하게 살아왔어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행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두 배, 아니 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생활의 힘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고창에서도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키우고 발전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절, 인사법부터 지켜주는 것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가에 대해서, 왜 행복하다는 말을 미온적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사람들은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3천여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겠나?"고 물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의 행복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실시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들어봤는데, 약 40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1, 2, 3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과 희망, 이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목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속의 꿈을 이루지 못하죠.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고창에 오지 못했다면 저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꿈과 이상, 희망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첫 번째로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싶어할까요. 이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동안 돈에 너무 목말라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돈에 목말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은 또 우리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난하면 자식이라도 돈이 있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나쁜 법도가 필요합니다. 돈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보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앞의 두 가지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지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적인 존중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대접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죠. 서울 강남의 일부 부자들 중에는 부동산으로 갑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호화로운 생활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업도 하면서 회장 직함도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결국 실패했죠. 그랬더니 골프 치러 다니거나 하면서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겸임교수 자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모자랄 것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밖에 나가면 남들이 자신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거죠.

돈, 경제적 부보다 먼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의식변화 있어야 진정한 행복 느낄 수 있어

사회적 지위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해 스스로가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어디 회장이고 교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갖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변질되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출세하려면 일류대학을 가야하고, 일류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못 받는 식으로 사회적 지위에 변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행복의 주관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주변에서 중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나?', '어떤 직장 다니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순서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하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좋은 대학 나왔다면 이 사람이 머리는 좋은가 보다, 어느 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사회성도 있구나, 부모님이 어디에 어떤 분이냐 하면 결혼 잘 시켰구나 하는 등 홍보효과는 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뭐가 중요할까. 살다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거 똑같이 자식에게 전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살면서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굶고 있으면 리어카라도 끌 자신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가 마음 아플 때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인간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묻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95세쯤 되시는데, 고향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그냥 무한정으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옆에는 어머니 말고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가진 게 없는 남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던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제 기대와는 달리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물겨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혼자 울었으며 늘 어딘가 탈출구가 있으면 달아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친구, 돈, 여자 속에서도 진실로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학을 하게 된 동기도 아버지의 일기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미소를 지어도 가슴에는 외로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인간의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때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외롭다는 것을 돌아가시면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생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오고가야 행복한 결혼생활 가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화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언어'가 있어요. '빨리 일어나', '전화 왔어요' 이런 말은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정서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부부끼리 정도의 대화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사무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연애했 때는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필요한 말, 사무적인 말만 하고 입을 닫습니다. 결혼생활 자체가 사무적으로 시작해서 사무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사이라면 이것보다는 친근하고 깊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하는 말이 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만 보면 돈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돈은 누가 냈는지 먼저 물어 봅니다. 남자도 여자만 보면 먹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일상적인 이야기, 사무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 등 이야기거리를 밖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길어집니다. 여기에서 좀 더 깊어지

면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를 봤는데, 결국 동성애를 다룬 것 아니냐" "그 때도 동성애가 있었을까. 어느 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생각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치점을 찾으려는 겁니다. 일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생각의 교환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남편이 말도 못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남자와는 못 산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이혼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애들이 사춘기라 안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결혼할 때는 그 때대로 또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 반이 지났을 때, 그렇게 구두쇠 노릇하던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씩 주머니 받거나 하는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저한테 던져줘요. 주워서 봤더니 집문서였습니다. 그 때는 7년 반을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해서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00만원 좀 넘는 집이었는데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 술잔을 들이키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수고했어, 미안해" 그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고생만 시키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 반찬으로 고추장만 싸 가지고 다녔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만약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양복을 사고 집을 하나 사겠다. 그리고 집에는 문패를 대문보다 크게 써 붙이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울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알아?" 제가 알긴 뭘 알아요. 하지만 그 때 그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알아, 여보" 했습니다. 아마 이 문답을 열 두 번도 더 했을 겁니다. 뭘 아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눈치만 보고도 서로 알아칩니다. 말 안 해도 소통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황제처럼 맛있는 아침밥을 해주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그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언덕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서로에게 주지만 한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 밤 그 남자의 눈물, '당신 알아' 하는 말이 귀에 맴돌아서 그 남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부사이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서로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눈물을 보이면서 한 식구로 일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앞으로 여러 힘든 상황을 헤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人間**

順天者は 存하고 逆天者は 亡한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미국 명문대학의 CEO 산실인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교과목은 경영(기업)윤리학과 환경학이라고 한다. 미국의 최대 기업군에 속하던 에론사는 에너지 중심기업으로서 미국경제에 막강한 위력을 누렸지만 회계부정사건으로 그만 몰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까지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컸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 얼마 되지 않은 과거사인데도 까마득하게 잊혀진 옛이야기처럼 됐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대기업들의 기업윤리와 경영윤리 문제가 에론사가 무너지면서 울려 퍼졌던 비명소리를 되살려 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8,000억 원 사회복지기금과 현대·기아차그룹이 발표한 1조억 원 사회헌납 결정 등 빅뉴스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IMF 이후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몇몇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세주 역할을 다했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회환경에서도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예찬론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재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을 개혁과 혁신에 매달려 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정부 당국의 적절치 못한 리더십에 대해 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몰락과 대량실업, 그리고 꺼져버린 소비경제 때문에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지친 국민들의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 다가오는 5.31 지방자치선거와 2007년 대선 정국을 매우 불안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필자는 지난 4월 24일 중국 7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길림대학교에서 향후 5년간 고문교수(Consult Professor)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고 외국어학원에 소속된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간자본시대의 리더십과 People Technology"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돌아왔다. 중국정부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신 농정책으로 정하고 국가차원에서 학습교자 8~9억 명으로 추산되는 농민, 관계 공무원과 기업인, 사회지도자를 한국에 파견해 장단기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때마침 인간개발연구원이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길림성의 각 부문에서 선정한 4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강에 참가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한국사회와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 아니었다.

1997년, 이른바 IMF 쓰나미로 쓰러져 버린 16개 한국 재벌기업들의 불행했던 이야기를 했다. 울창한 숲 속에 큰 나무들이 넘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현상과 그 쓰러진 까닭이 무엇인지를 IMF 때 쓰러진 한국 재벌기업들의 현상을 보고 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자본을 튼튼하게 육성하지 못한 기업인들의 리더십과 인간기술의 저수준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자본시대를 맞아 그에 상응한 리더십과 인간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경제가 새마을운동과 같은 효과적인 사회변혁운동을 시도하면서 경제개발에만 주력한 나머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인간자본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 IMF와 같은 경제성장의 역풍을 맞아 지금까지도 시련에 시련을 겪고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안 13억의 인구를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기보다는 13억 명의 사람들을 인간자본으로 육성해내는 기업·경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21세기를 정보혁명시대, 기술혁명시대, 인간혁명시대라고 부른다. 21세기가 추구하는 경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크고 작은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시대, 세계화시대, 개방의 시대에 적자생존의 원리를 지켜 나가는 길이 우주와 세계질서에 대한 적응능력이다. 우주질서 적응능력, 이듬하여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주질서의 원리란 인간 속에 내재한 인간의 진리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최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이자 경영윤리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진실할 때 용기를 갖고 큰 힘을 발휘하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人間**



한의학으로 풀어본 봄철 건강관리

정경연 정경연한의원 원장



은 계절이다. 이런 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체는 소우주(小宇宙)라는 동양의학의 기본 원리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인체에도 양기가 솟아나고 습기가 많아지는 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철 건강관리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신체가 잘 적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체력 약하거나 겨울 섭생 게을리 하면 쉽게 춘곤증 생겨

봄이 되면 만물이 겨울의 움츠렸던 기운을 뚫고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며 양기가 솟아 오른다. 새싹이 자라나면서 자연의 양기가 솟아오르는 이 때에 맞춰 몸 안에서도 자연스레 양기가 솟아올라 세포 하나 하나가 깨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체력이 약하거나 겨울 동안 섭생을 게을리 해서 몸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자꾸 졸리는, "춘곤증"이 생기는 것이다. 몸이 좋지 않으면 봄철 많아진 습기에 몸을 쉽게 상하게 되는데, 몸이 무겁고 자꾸 눕고 싶으며 잘 붓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봄꽃은 활짝, 날씨는 따뜻, 만물에 생기는 도는데, 몸은 자꾸만 무겁고 기운이 없으니 병은 아닌가 싶지만, 몸이 우주의 조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일 뿐이다.

한의학에서는 봄의 쪽쪽 뻗어나는 기운을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것에 비유해서 목(木)으로 보고 인체의 간(肝)에 배속시키고,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발산하여 퍼져 나가는 기운을 화(火)로 보고 인체의 심(心)에 배속시키고 있다. 봄은 이렇게 간과 심의 기운이 천하에 가득한 계절인데, 춘곤증을 느끼는 사람은 간과 심의 기운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만물기운의 섭리대로 따라가질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간의 기운을 더해주는 신맛(酸味)나는 음식과 심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쓴맛(苦味)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다행히, 봄철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이, 달래, 씩, 두릅, 씬바귀, 취나물 등의 봄나물들은 대부분 쓴맛과 신맛을 내고 있으니 참으로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파릇파릇한 봄나물

봄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양기(陽氣)가 상승(上昇), 발산(發散)해서 만물이 싹트는 계절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유로 봄을 '만물이 소생하고 일어나는 발생지절(發生之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땅들이 녹아서 축축해진다. 그래서 봄은 습기가 많

정경연 원장

1968년 생 / 동국대 한의학과 졸업 / 동국대 한의학 박사 / 동국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 동원F&B, 한국화장품, 세리 퍼스널 컬러연구소 한방 전문자문위원 / 대한한방 해외의료봉사단(KOMSTA) 회원 / 대한 한의침구학회 정회원 / 대한 약침학회 정회원 / 건강칼럼니스트 / 저서 : 몸에 좋은 색깔음식 50, 셀러리맨 구출하기

들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문혀 먹거나, 갖은 양념으로 살짝 버무려 먹으면 봄나물에 가득한 양기를 섭취하게 되니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이만한 비법이 없을 것이다.

겨울철 따뜻하게만 지내면 봄감기, 온병 올 수 있어

사계절 감기 중에서 봄철 감기를 한의학에서는 특히 "온병(溫病)"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서는 온병의 원인을 겨울에 섭생을 잘못해서 너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했다. 겨울은 기운을 저장하는 계절인데 겨울 동안 따뜻한 곳에서만 지내면 기운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운으로 겨울에 봄꽃이 피듯이 양기를 발산하게 된다. 그러면 정작 양기를 발산해야 할 봄에 발산하지 못하고 온병이 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겨울답게 춥지 않고 적당하게 춥기 때문에 봄에 온병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겨울추위가 매섭지 않으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사람도 겨울엔 춥게 지내서 기운을 많이 저장해 두어야 한해 건강이 무사하다. 온병을 예방하려면, 이와 같이 겨울동안의 섭생이 중요하며, 일단 발생한 온병은 감기 증상만 쫓아다니서는 치료가 어렵다.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병의 치료는 증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겨우내 부족해진 원기(元氣)를 보(補)해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반갑지 않은 봄 손님 황사

따뜻한 햇볕과 한결 포근해진 바람이 반갑기는 한 봄이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봄 손님이 "황사(黃砂)"다. 황사는 평소보다 먼지는 4배, 중금속은 2배에서 10배 정도가 많은, 농도 짙은 중금속 먼지다. 게다가 일교차가 큰 봄철의 특성상 찬 지표면의 공기와 따뜻한 지상의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덮은 황사 먼지는 그대로 땅위로 내려앉는다. 수 년째 황사의 중금속 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다 황사주의보도 점점 더 잦아지고 있어서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황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황사먼지가 미세먼지 뿐 아니

라 수은,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와 호흡기 등의 점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사가 시작되면 비염, 감기, 결막염 등으로 병원은 물론 한의원까지 찾는 이가 평소보다 20% 가량 증가한다.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가기도 자극해서 기침이 늘고, 가래나 염증을 일으켜서 숨쉬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피부와 호흡기가 폐(肺)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감기는 물론이고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환에 취약하고 오래 갈 뿐 아니라, 피부도 약해서 황사먼지 등의 외부 피부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때문에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황사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먹거리로는 도라지, 배, 꿀이 으뜸이다. 도라지는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고 가래를 잘 삭혀주는 효능이 있으며,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꿀은 건조한 상태와 기관지에 보습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다. 세 가지를 각각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를 1/4 잘라내서 뚜껑을 만들고 남은 3/4 부위는 속을 파낸 다음 도라지와 꿀, 대추를 넣고 배 뚜껑을 덮은 다음 30분

간 쪄낸다. 복용할 때는 배 속에 고인 물을 따라내어 따끈할 때 차(茶)처럼 마시면 된다.

황사가 심할 때는 먹거리를 챙기는 일 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아토피성 피부이거나 민감성 피부, 또는 알려지성 피부인 사람은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할 때 가급적 긴 팔 옷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가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목욕제품은 해독 효과가 있는 녹두나 녹차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금을 희석한 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녹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서 요즘 같은 황사철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은 팔방미인 식품이다. 녹차는 피부를 진정, 수렴, 살균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 또한 목욕용 녹차제품을 사용하거나 찌꺼기 녹차를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소금 또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목욕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고, 황사가 심할 때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아침저녁 가글을 해주면 황사로 인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人間)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국내 미디어플레이어 전문 개발업체인 **(주)썬뷰테크놀로지(회장 윤화진)**는 "MS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끼워 팔기 행위로 시장을 독식한 결과 소비자들이 성능과 품질에 관계없이 선택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로 인해 동종업체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심 (주)주택문화사 사장**은 지난 4월 7일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2006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심 부회장은 현재 '노년시대' 발행인을 겸하고 있다.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은 LMI 안국교육장에서 4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정운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을 모시고 "세종대왕 리더십"에 관한 주제로 제30차 LMI수료자 모임을 가졌다.

• 2003년 개관한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관장 유상옥)**은 박물관 6층 특별전시실에서 제2회 특별기획전 '푸른 빛으로 전하는 하늘의 소리, 동경(銅鏡)'전을 열고 있다.

• **심갑보 삼익LMS(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21세기 경영인클럽이 제정한 2006년도 '21세기 대상 올해의 영업부문 관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4월 11일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4월 20일자로 **삼익LMS(주)는 삼익THK(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번 상호변경은 세계적인 LM가이드 제조업체인 일본 THK(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이와 함께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0,000명의 부지에 신사옥과 공장을 건립하여 입주를 마쳤다.

- 아 래 -

- 상 호 : 삼익 THK(주)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05번지
- 대표번호 : 053-665-7000 / 서울사무소 02-3454-0797

• **이동희 오성연구소 이사장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독일, 프랑스, 터키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 전통과 문화속의 선비정신(뿌리와 날개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귀국하였다.

• **김용복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20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한사랑농촌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 시상식은 그 동안 그늘진 곳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에 묵묵히 기여하면서도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숨은 애국자들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한사랑농촌문화재단에서 제정한 시상식이다.

• **교보문고(사장 권경현)**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4월 22일부터 범정스님 특별 강연회(강남점), 이순원 작가 낭독회(잠실점), 각계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책의 날 및 여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바자회 기념식(광화문점)을 개최하고, 책의 날 당일에는 교보문고 전 영업점에서 도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장미꽃을 무료로 증정하였다.

• **임정희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지난 4월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을 선정 시상하는 자리에서 '국민교육 유공자'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여 받았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한국의 글로벌 경영발전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에서 주최하는 2006년도 제2회 글로벌 CEO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6일 한국일보사 12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우먼타임스(사장 신숙희)**는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제3회 걷기축제를 지난 4월 29일 올림픽 공원 한얼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우먼타임스와 (사)함께여는 세상이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따스한 봄날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만끽하였다.



• **이재욱 GE코리아 회장이** <백만불짜리 열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책을 통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주장한다. 책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GE의 한국 책임자로서 저자 자신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공의 조건, 경영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생생한 경험담을 설득력 있게 소개하고 있다.

• **임미경 대불대학교 음악과 교수**는 음악경영인을 위한 <성공적인 피아노 교사를 위한 음악경영> (일신서적출판사)을 출판하였다.



• **박세직 한국청소년마을 총재(전 올림픽조직위원장, 육사 12기)**가 예비역 군인들의 단체인 재향군인회 31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군구 대의원 365명 가운데 359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20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 신규회원

정기선 봉등전기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8-2
 · 전 화 : 02-353-0051
 · 팩 스 : 02-353-1134
 · 업 종 : 건설업
 · 홈페이지 : www.bdec.co.kr
 · 추천인 : 정문호 동국산업 사장

김연수 파라다이스 삼청각 사업본부 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115
 · 전 화 : 02-765-3700
 · 팩 스 : 02-3676-3464
 · 업 종 : 호텔, 문화공연업
 · 홈페이지 : www.3pp.co.kr
 · 추천인 : 김은영 비틀맵 사장

최신옥 한미콘소바토리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4-2
 미관빌딩 203호
 · 전 화 : 02-597-7055
 · 팩 스 : 02-597-7371
 · 업 종 : 교육
 · 추천인 :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부원광학(주)	박준봉 사장	5월 1일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이상영 원장	5월 1일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주)리더홀딩스	전병문 사장	5월 1일
(주)GMF	김수경 명예회장	5월 8일
(주)디에이치엘코리아	배광우 사장	5월 8일
(주)한국아쿠르트	김순무 사장	5월 10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동일토건	고재일 대표이사	5월 20일
거벽엔지니어링(주)	김영관 대표이사	5월 20일
(주)현대홈쇼핑	홍성원 대표이사 사장	5월 29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 소모임 소식

• **화목회(회장 황석희 / 법무법인 우현지산 상임고문)** 4월 정기모임이 지난 18일 명동 금강산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모임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주셔서 회원간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제225차 모임이 지난 24일 교대역에 위치한 용수산 아크로비스타점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회원들은 식사와 함께 회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목회(회장 김정배 / 수성 사장)**는 지난 4월 25일 제45차 모임을 리움미술관(삼성미술관)에서 갖고 고려청자, 불교미술, 서화 등 한국 고미술을 관람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람 후에는 베트남 음식을 즐기며 45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주택문화사 사장)**는 4월 월례경기를 지난 26일 한양C.C에서 가졌으며, 완연한 봄을 맞아 운동으로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지중해클럽**에서는 4월 모임을 지난 19일 중식당 흥성원에서 갖고, 권오춘 국어고전문학원 이사장의 5월 안동여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다락회(회장 박세직 / 한국청소년마을 총재)** 5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5월 2일(화) 오후6시 30분
- 장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장충동 Tel. 02-2238-6493)
- 연 사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주 제 : 장성군 이야기 / 문 의 : 총무 우창욱(011-223-6323)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 5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5월 22일(월) 오후7시 / 장 소 : 최우영 사장 자택
- 회 비 : 5만원(식사 및 기타비용)
- 참석 여부 : 총무 전병문 (H.P. 011-212-9860)
- 문 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대리 (Tel.02-2203-3500 (103))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 한국외교협회 고문)** 5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5월 24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16층 뱅커스클럽 (Tel.02-3705-5111)
- 주 제 : 중국의 새마을 운동, 동북공정문제 등
- 회 비 : 5만원 (식사 및 기타비용)
- 문 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대리 (Tel.02-2203-3500(103))

■ 연구원소식

• 군 혁신 위한 "혁신아카데미" 및 "리더십 교육" 개설



본원은 지난 4월 5일 계룡대에서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육군 참모총장 주관 하에 영관급 장교 250명을 대상으로 <KB 육군 혁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번 교육

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육군 제5군단에 군단 및 지역 내 영관급 이상 장교 150명을 대상으로 <KB 승진(勝進)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본원은 육군 제5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인 육군 제66사단의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LMI의 '효과적인 퍼스널리더십(EPL)' 과정을 개설, 16주간의 일정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육군본부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을 '혁신 학습의 날'로 정하고 육군이 당면한 제반 문제점, 특히 군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없애고 육군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육군 제5군단도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혁신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능력과 자질 및 마인드를 함양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령관을 비롯해 참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직접 교육에 참가하는 EPL과정은 지휘관들의 리더십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원은 최근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군 복무자의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민은행(행장 강정원)의 후원 하에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 군과의 대화체널을 마련함으로써 선진 병영문화 및 군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 중국 길림성 정부 당서기 이하 시장·군수 대상 새마을 교육 연수프로그램 실시

중국에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농촌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채택한 것과 때를 같이 해, 본원은 중한 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함께 한국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성공사례 및 농업정책 등을 전함으로써 중국 도농의 동반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동북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새마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5월 10일까지 14박 1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중국 길림성 당서기 이하 공무원 4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수

기간 중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선진지 등을 견학하는 일정을 갖게 된다. 한편 27일 개강식에는 조순 본원 명예회장(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한국경제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강강연을 펼쳐 한국의 발전상을 들려주었다.

• 장만기 회장 LMI 월드컨퍼런스 참석 중국 길림대학 고문교수 위촉



장만기 본원 회장은 지난 4월 2일~9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2006 LMI 월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올랜도를 방문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LMI 월드컨퍼런스는 전세계 70여개국의 LMI 대표자들이 참석해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신사업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한편 장만기 회장은 중국 길림성 길림대학의 고문교수로 위촉되었다. 이에 장 회장은 지난 4월 22일~26일까지 길림대학을 방문, 24일 길림대학에서 위촉장을 받고 길림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이윤수 NYK(LINE)CO.LTD 고문의 차남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 일 시 : 5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 (Tel.02-541-9280-1)

• 이재병 지엠비코리아(주) 상무이사의 장남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 일 시 : 5월 5일(금) 오후 5시
- 장 소 :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Tel.02-3452-25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정배 (주)수성 사장 모친께서 지난 4월 14일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족을 위로해 주신데 대신 감사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LMI & YOU



우량 중소기업 (주)하도 사람에 대한 투자로 100년 기업 일궈간다

주식회사 하도는 우리나라 교반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다. 교반기란 믹서기라고도 하는데, 커다란 화학탱크 같은 곳에 장착되어 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본 교반기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그 보다 작은 것 등 여러 종이였다. 그러므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석유화학회사, 합섬회사, 식품회사, 화학회사, 수처리회사를 고객으로 삼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공장을 둘러보니, 모르는 사람 눈에도 만만치 않은 기술을 요하는 업종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도는 기술력과 고객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반기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려왔다. 하도의 기술제휴 및 합작사인 일본 사다계화학기계공업(주)이 85년 된 회사라고 하는데, 하도는 1977년 창업했으니 내년엔 30주년을 맞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회사의 옥평권 사장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 교반기 분야의 최고 회사가 되어 100년 후에도 활동하는 기업, 100년 후에도 타 기업 제품에 비해 월등히 앞선 제품을 만드는 하도를 꿈꾸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옥평권 사장은 대기업조차 쉽지 않은 교육비 투자를 결단하여 자신을 비롯해 하도를 이끌어 가는 핵심 간부 사원 10명에게 LMI 퍼스널리더십(EPL)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객을 더욱 잘 모시기 위해 매주 월요일 8시에서 10시까지 고객 전화를 받지 않고 EPL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의 각 부서 책임자들인 부장, 과장들은 10~20년 하도에서 근무한 그 분야의 베테랑으로써,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춘 건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번 교육의 퍼실리테이터를 맡고 있는 LMI의 송향섭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분들은 주어진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인생 목표가 뚜렷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저마다 인생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이 조직 목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순수한 분들이고, 옥사장님과 성과협약서도 작성했으므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100년 정신'의 기업 하도는 30주년을 맞아 중국 등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하도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평양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도 한 옥평권 사장은 교육을 통해 '30주년 매듭'을 큰 발전으로 이어갈 준비를 해왔다. 전 사원에게 1년에 2강짜씩 교육을 받게 한 후 사내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책을 사주고 독후감을 제출 받는데, 10권이 넘는 책을 읽는 사원도 나오고 있다. 그 사원은 책값 이외에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사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을 보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사원들의 사기는 매우 높아 보인다. 하도의 직원들은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가 깎듯하면서도 자연스러워 규율과 자율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기가 높으면서도 규율이 있는 기업은 못할 것이 없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우리 중소기업 하도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 LMI 교육안내

1. (주)하도 간부사원 1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 과정 개강
 - 일 시 : 4월 3일(월)
 - 대 상 : 대표이사과 간부 사원 등 10명
 - 장 소 : (주)하도 회의실
 - 지 도 : 송향섭 박사(LMI FT)
2. 육군 5군단사령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 과정 개강
 - 일 시 : 4월 19일(수)
 - 대 상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 장 소 : 5군단 내 회의실
 - 지 도 : 안효열 LMI FT
3. 제73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 개강
 - 일 시 : 4월 26일(수) 오후 7시
 - 대 상 : 각 분야 리더 및 기업 CEO, 퍼스널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지 도 : 안효열 LMI FT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긍정적 사고의 힘

윤금순 성공이미지연구원 원장

때때로 어눌하고 평범한 사람이 강렬하고 오래가는 교
훈을 주기도 한다.

언젠가 어느 지역의 농촌 지도자 모임에 특강요청을 받아 간 적이
있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서른 중반쯤 되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이
농사꾼은 보통농사꾼이 아니었다. 본명이 있긴 하지만 '기동이 삼촌'
으로 불리는 그는 좁게 입을 놀리지 않는다. 남도 어느 촌마을에서
근력있는 장정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마을 위원회의 말석을 차지
했지만 마을의 공동 쓰레기장 건립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확장 등 마
을 현안 문제를 놓고 위원회가 소집되면 소위, '말 편치' 있는 인사들
이 저마다 차례를 다투며 의견을 내 놓을 때 기동이 삼촌은 언제나 처
럼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사실 그는 기회가 주어져도 매표롭하고 조
리 있게 말을 할 만한 재주가 없다.

희망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사고의 전환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의 예산이 생각보다 커서 여기저기 '불가' 쪽
으로 말이 나오고 팍팍한 동네 살림이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특수작물이 주 수입원인 이 마을에 농기구의 기계화와 신속
한 유통을 위해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피할 수 없는 숙원 사업
이기도 했다. 당장 농가당 상당액의 돈이 각출되어야 할 판에 위원회
의 회의 마무리는 이제 거의 불가능 쪽으로 기울었다.

바로 그때, 나지막하고 바튼 기침 하나가 구석에서 '툭' 하고 터져
나온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동이 삼촌이 발언하기 전 내놓는 일
종의 주의 집중용 혹은 발언 준비용 기침이다. 이래서 안 되며, 저래
서 곤란하고, 요래서 불가능하다고 과도히 놀린 세 치 혀들이 피곤도
하여 실 겹, 기동이 삼촌이 한 말씀하도록 길을 터 준다. 잔기침 몇
개가 더 튀어나온 다음, 기동이 삼촌이 한 말은 딱 다섯 마디, "상황
이 썩 좋진 않지만...(잠시 침묵),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 다음은
무얼까? 모두들 무슨 묘안이라도 있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잔기침 두
어 개가 뒤따를 뿐 그대로 입을 닫아 버린다.

야쿠르트 한 병 까먹을 시간이 지난 후, 마늘 농사짓는 최 영감이
군청의 높은 양반들한테 밀쳐야 본전인데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고 어스름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촌에서는 보기 드물게 원예작물
을 하우스 재배하는 김씨가 고향 사람 중 대처에서 토목회사를 하는
사람에게 공사비를 왕창 예누리하고 마을사람들이 허드레 품을 제
공하면 어찌어찌 될 것도 같다고 희망색이 약간 더 짙어진 제의를 한

다. 이어 잠시 휴식을 취한 세 치 혀들이 이래서 될 것 같고 저래서 가능성이 있으며 요래서 분명히 된다고 이전 가능 쪽으로 입을 모은다. 이쪽에서 얼씨구 하면 저쪽에서 짤씨구, 그쪽에서 지화자 하니 요쪽에서 얼썩얼썩 화답한다. 순식간에 국면이 반전되었다. 이제는 되는 쪽으로 '뭘이 확 꽂힌 회의장에서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쪽의 의견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 기동이 삼촌은 묘책을 내 놓지 않았다. 묘책을 내 놓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다만 사고의 전환, 희망과 가능성의 문을 한번 '톡' 하고 두드려 준 것뿐이다. 그해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그 마을에는 근사한 진입로가 생겨났고 마을사람들은 이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딱 다섯 마디, '상황이 썩 좋진 않지만...', 그러나'

기동이 삼촌의 기침 끝에 나온 이 다섯 마디가 진입로 하나를 푹푹 만들어 내었고 마을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영어 쓰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말을 한다.

'Things may look bad...', but'

부정적 사고는 또 다른 부정을 불러오지만 희망과 긍정적 사고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

오늘날의 사회 구조를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그 속에서 살아온 사회구성원은 경험상 체득한 몸 보전 비법으로 일단 부정하고 본다. 한때 청소년들의 모델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 시켰던 어느 학자의 연구 업적이 대 사기극으로 밝혀진 작금의 현실에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처세가 힘을 얻는 듯 보인다.

부정은 부정을 살피우고 희망을 굶어 죽게 한다. 부정 쪽으로 한번 뱉어낸 말은 이상하게도 생명력이 있어 또 다른 부정을 힘도 안 들이고 불러온다. 돌보지도 않는데 부정은 스스로 장성하여 튼튼한 자식을 낳는다. 빛을 거두어 가면 저절로 어둠이 그 자리를 지배하듯 희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망과 부정이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온다.

그러나 희망과 긍정은 그 여린 체질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좌절 앞에서 더 없이 당당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둠도 성냥불 하나에 물러나듯 희망과 긍정에 불을 밝히면 부정과 좌절은 스스로 물러난다. 희망의 기회는 교활한 성질이 있어 혹 실패로 혹 좌절로 변장을 하고 뒷문으로 미끄러져 오길 좋아한다. 희망의 불을 꺼뜨리면 그 교활한 희망의 기회가 그대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다행스런 것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는 가장 깊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까지도 부르짖어 언제나 온다는 사실이다. 올뿐만 아니라 희망과 긍정은 특성상 좌절과 부정의 동역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있는 곳에는 좌절과 부정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 버린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긍정과 가능성이라는 희망의 아들딸은 양육의 수고를 저버리지 않는다

윤금순 원장

1961년 생 / 중앙대 교육학 석사 / 숭실대 대학원 박사과정 / 새마을중앙연구원 및 기타 기업연수, 전국농협주부대학, 한국농업연수원 강사 / (사)한국청소년마을 인터넷방송본부(KYBC) 이사 / 서울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 / 숭실대 평생교육 HRD연구소 연구위원 / 양천구청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 / 삼육대 교양교직과 외래교수

기동이 삼촌은 어디서 이런 내공을 길렀을까?

유기농을 고집하던 그의 농사가 극심한 병충해로 절단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그를 향해 손끝을 모았다. 이듬해 파종할 때 사람들이 충고했다. 농약 없이 농사지를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고 말라고. 시퍼렇게 멍든 농심을 부여안고 끄으! 신음 한번 토한 다음 그는 '그러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가능성을 찾았다. 찾고 또 찾았다. 3년을 내리 절단 내고도 다시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웃었다. 네 번째 봄이 왔을 때, 그가 찾아낸 방법으로 농약 없이, 금비 대신 친 환경 퇴비로 멋지게 작물을 키워냈다. 그런 대로 작황도 좋았고 때마침 불어 온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작물에 높은 값을 쳐 줘 대박이 터졌다. 노총각 딱지를 떼는 것도 그해이다. 그의 얼굴에 운택하고 여유로운 기운이 흐른다. 그해 포기했더라면, 그 이듬해 포기했더라면, 석삼년째 포기했더라면 그는 웃지 못했을 것이다.

'상황이 썩 좋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상은 강력한 힘을 지녔다. 나 도 위기와 좌절에 맞닥뜨릴 때마다 기동이 삼촌의 '그러나' 처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언제나 웃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그러나'는 항상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희망도 자식을 낳는다. 긍정이라는 아들과 가능성이라는 딸을 낳는다. 이들은 부정의 자식보다 훨씬 잘 생겼다. 부정의 자식은 돌보지 않아도 튼튼하지만 희망의 아들딸은 공을 들이고 기르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자식들은 때때로 기르는 이의 은공을 배반하나 희망의 아들딸은 결코 양육의 수고로움을 저버리지 않는다. 해 볼 만한 장사다.

나는 오늘도 강의장에서 절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재기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용기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부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를 외친다. 내 강의를 수강한 많은 사람들이 끄으! 신음 한번 토해내고 '그러나' 하며 재기의 진입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볼 때, 긍정적 사고가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Things may look bad...'

'그러나' 처세술로 성공의 진입로를 열자

우리네 인생살이의 거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다. 돈벌이도 만만찮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쉽지 않으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익을 이루기도 어렵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난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다. 기동이 삼촌의 '그러나' 한 마디가 가능성과 희망 그리고 긍정의 문을 열어 놓았고, 그 문안을 들여다 본 사람들의 중지가 모여 공영의 진입로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성공을 향한 진입로가 열릴 것이다. (人間)



보다 나은 사진을 얻기 위한 촬영 노하우 - 여행사진

오경근 베로니카 카스 코리아아카데미 원장

잠들었던 대지를 깨우며 봄이 무르익고 있다. 일상에 지친 피곤한 몸을 잠시 교외로 돌려 쉬게 하는 여유 한번쯤 부려본다면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을까. 교외로 나갈 때, 꼭 챙겨 가는 것이 카메라다.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도구다.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카메라는 우리와 더욱 친숙해 진 듯 하다. 그러나 생각만큼 좋은 사진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몇 가지 기능을 익힌다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원 회원이면서 대한프로사진가협회 교육이사를 역임한 오경근 원장을 통해 카메라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노하우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인물사진에 대해 알아보자.'
- 편집자 주

종전처럼 필름카메라가 주종을 이루던 아날로그시대에서는 노출을 정확히 맞춰 촬영해야 했지만, 현재의 디지털시대에는 신경 쓸 것이 많이 없어졌다. 즉, 노출은 AF(Auto Focus)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구도와 역광, 반역광, 45도 광선 등의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촬영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노출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고급 디지털 카메라를 가진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이에 맞는 촬영법을 알아보겠다.

인물사진

▶ 배경

인물사진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배경(背景, Background)이다. 인물을 어디에 세워야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여러분은 고심하실 것이다. 그러나 배경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인물을 주로 할 경우에 배경은 될 수 있는 한 복잡한 곳은 피하고, 크고 단일색으로 된 곳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배경이 복잡하면 화면이 통일되지 않고, 주제인 인물의 인상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배경의 밝기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경이 인물의 얼굴과 같은 정도로 밝으면 인물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층 더 어두운 배경을 고르는 것이 좋다.

▶ 라이팅

인물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팅이다. '동양인의 얼굴은 평면적이어서 촬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라이팅에만 유의하면 새도로 얼굴에 충분한 입체감을 줄 수 있고, 생생하고 훌륭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그 전에는 약간 흐린 날이나 그늘진 곳이 야외 촬영의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다. 얼굴에 그늘이 없고 고른 채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촬영하면 더욱 납작하고 입체감 없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한 라이팅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사진을 찍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라이팅을 달리 해야 한다. 사광(斜光)으로 찍으면 코가 높아 보이고 얼굴에 요철(凹凸)의 변화를 만들어 입체감을 주지만, 잘못하면 아름다운 볼우물이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되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은 무섭게 보인다. 광대뼈가 나온 사람에게는 바로 내리비치는 12시 방향의 햇빛은 금물이며, 얼굴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정면으로부터의 라이팅으로 주름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라이팅을 연구하고 빛의 효과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야외 촬영에서 주의해



오경근 원장

1941년 생 / 1978~97년 아기사진 개인전 8회 개최 / 서울인상사진연구회 회장 / 대한프로사진가협회 교육이사 겸 교육연구위원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프로필, 베이비, 가족, 리터칭 강의 / PPA 1996~2000년 참가 / 2001년 PPA LOAN Collection 수상 / 오경근 리터칭 교실 운영

야 할 것은 나뭇가지나 잎 사이에서 스며드는 빛과 그늘이다. 이런 것이 인물에 비치면 사진에서는 거뭇거뭇한 얼룩으로 나타나 보기에 좋지 않다.

▶ 촬영 각도

배경이나 라이팅 다음에는 촬영 각도가 문제다. 인물사진에서는 가슴과 코 사이에 렌즈를 대는 것이 좋고, 밑에서 치켜 찍는 로우 앵글(Low Angle) 사진에는 박력과 동감이 있어 보이며, 턱이 짧은 사람에게는 하이 앵글(High Angle)이 좋다.

▶ 표정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신선한 포즈를 잡는다는 것은 인물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발견한 순간, 빠른 눈과 빠른 손으로 셔터를 끄는 타이밍과 기민함이 매우 중요하다.

▶ 조리개

기본적인 사진촬영에서는 f:5.6, f:4가 좋으며, 배경이 있는 사진촬영에서 성당을 배경으로 촬영한다면 성당 전체가 보일 때까지 뒤로 물러나고 인물을 2~3m 앞에 두고 촬영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말 교외로 나가 가까운 이의 모습을 앵글에 담아 보자. (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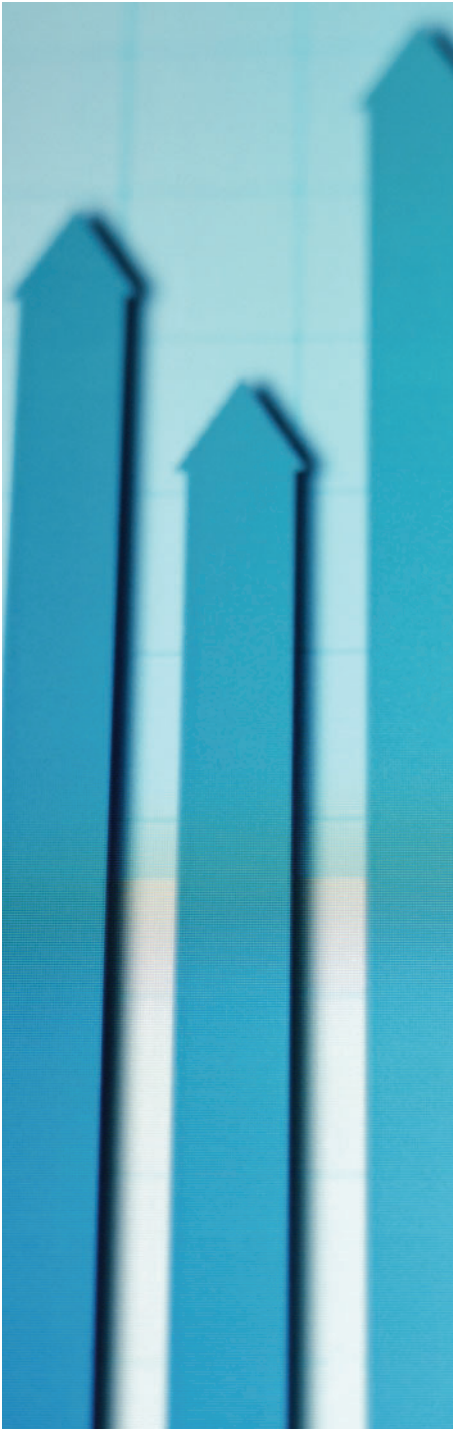


1.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하면 배경이 선명하다 / 2.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한 경우 배경이 흐리고 인물이 선명하다 / 3. 사광 인물사진에는 제일 좋은 광선이다 / 4. 카메라에서 인물이 너무 멀어서 작아 보인다 / 5. 카메라 앞으로 2~3m 간격을 유지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가격의 급등문제를 생각한다

고지석 고지석세무회계사무소 회장



2003년, 10.29 조치로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2004년 말에는 종합토지세제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제가 신설되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8.31 조치 등으로 또 다시 부동산관련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를 강화하면 아파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2중 3중으로 세금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작년 가을부터 더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가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증과하면 아파트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증과함에 따라 오히려 양도를 못하고 있으므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드는 반면 수요만 살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이나 신흥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고가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아파트 평수를 줄여 가야 할 형편이 되어 좋은 집만 없어진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주택들에 대하여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니 아파트를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동안 없던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예상했던 자금 계획이 맞지 않아 아파트를 팔 수가 없게 되어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양도소득세만큼 더 주면 팔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내 놓자 그래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만큼 더 주고 매입하게 되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면 그 가격이 새로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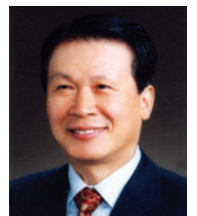
세가 되고 또 그 가격에 세금을 부담해 주면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은 고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과하면 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실은 과중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의 양도를 꺼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아파트도 경제물이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가격을 동결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현재의 고가주택이란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으로 강남, 서초의 중형 이상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의 수준을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개정 전의 고급주택 수준)으로 그 규모나 가액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 주어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고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부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한다면 소급입법이라는 문제도 해결하고 아울러 수요도 억제하게 되므로 고가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人間**



고지석 회장

1946년 생 / 초당대 기업관리학과 졸업 / 경원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과정 중 / 국세청 연합조사반 및 수원, 한강, 소공세무서 근무 / 한국세정전문사 세무상담위원 / 한국최초 양도소득세 전산프로그램 개발 /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 행정자치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위원 / 서초세무사협의회 회장 / 초당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최근 들어 KT&G가 아이칸에 의해 경영권 도전을 받다가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정부가 이 회사의 전신인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한 목적은 경영의 효율증진에 있었다. 민영화하고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 정말로 경영이 좋아지는가. 나는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

이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담배나 인삼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원래가 주식투자꾼이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실물을 잘 만들겠다는 한가한 생각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라는 외국의 투자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그 은행을 매각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조사할 목적으로 검찰은 론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사모펀드가 과연 외환은행 인수의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리라 한다. 한국사람들은 웬지는 몰라도 자국민에 대해서는 까다로우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운 성향이 있다. 글로벌리즘의 본질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여기고 지나치게 과감하게 거기에 설정된 함정에 몸을 던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자세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함정 속 깊숙이 빠진 몸은 허우적거리도 헤어날 방법은 없다. 노자(老子)는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작은 생선을 찌듯, 조심조심해야 한다(治大國若烹小鮮)'고 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 용기를 부리면 재앙이 온다.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경제가 만들어낸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

다. 프랑스는 신노동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독일은 실업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 다 직접 간접으로 글로벌리즘이 불러온 문제들이다.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입국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철책을 치리라 한다. FTA를 맺은 나라들의 국경을 현대판 만리장성이 가로막다니, 모양이 사납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새삼 국가주의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국가주의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글로벌리즘이 만들어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으로 덕을 보는 나라도 많다. 첫째, 미국. 둘째, 중국. 셋째, 인도. 넷째, 푸틴 치하의 러시아이다. 이 중에 미국의 우호국이 아닌 나라가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중국은 앞으로 예견된 대로 균형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돌리리라고 한다. 이 나라는 무조건 글로벌 자본주의를 끌어안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조건 등으로 보아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도 결국 국가주의일 것이며, 미국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물론 국가주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글로벌리즘은 세계에서 고립될 것인가. 아니다. 미국의 글로벌리즘도 겉포장이 그럴 뿐, 껍질을 벗겨보면 그 나라 글로벌리즘의 탈 밑에는 국가주의의 몸통이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다면 최근의 무역 투자, 외교정책의 기초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人間**



엄마의 사랑은 보여도
비타민은 안보여요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에는
꼭 필요한 영양이 가득하듯-
가정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LG CNS의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LG CNS의 기술이 있습니다

IT세상을 움직이는 힘 - LG CNS



Stylish Buffet 라세느
2006년 5월 오픈

라세느의 봄은 어디서나 아름답습니다

2006년 5월, 롯데호텔월드의 라세느가 새로워졌습니다.

110여개 요리를 즉석에서 즐기는 섹션별 푸드 트레인으로

맛과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롯데호텔월드 뷔페 라세느.

이제 라세느의 아름다운 봄을, 소공동에서도 잠실에서도 똑같이 즐기십시오.

Stylish Buffet, 롯데호텔월드 라세느

Loa Seine
LOTTE HOTEL WORLD